

## 지역사회 숙원 한전공대 설립 특별법 2월 국회 꼭 처리해야

국민의힘 비협조에 심의조차 못해  
18일 다시 논의 가능성은 열어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설립지원을 위한 특별법’ 처리를 위한 첫 관문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4일 열렸지만 법 관련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부산 가덕도에서 ‘부·울·경 발전을 위한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 결의대회’를 여는 등 4월 재보선을 앞두고 부산에 공을 들이면서 광주·전남지역 현안 법안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민주당의 ‘무관심’과 ‘사립대를 위한 특별법이다’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비협조’가 더해지면서 지역 최대 현안 법안 중 하나인 한전공대 특별법 처리에도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 법안 안전 심의 과정에 한전공대 특별법은 논의되지 못했다. 애초 이날 논의는 통과와 소위 통과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었지만 회의 시간이 촉박해 한전공대 특별법은 거론되지 못했다. 그나마 그동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국민의힘 일각에서 “오는 18일 한전공대 특별법을 논의하자”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국민의힘 위원 일부가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모습이지만 당 차원의 조직적 반발 기류는 보이지 않고 있다. 학생 모집 등 정상 개교를 위해 2월 임시회 처리에 주력하겠다”면서 “한전공대 설립은 국

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요하며 지역사업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2022년 3월 개교를 위해서는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설립 광주·전남 범시민지원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며, 세계적 흐름인 에너지 대전환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시대적 사명”으로 출발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전공대는 에너지 분야의 특화된 새로운 연구와 혁신적 교육을 통해 에너지 산업의 생태계 혁신에 기여하고, 창의적인 에너지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는 국가 차원의 핵심 기관이 될 것”이라며 “기존 교육 체계와는 다른 새로운 교육 모델을 도입하고 특수목적과 자율성을 확보하게 한전공대가 내년 3월 정상적인 개교를 위해선 ‘한전공대 특별법’이 2월 중에는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공대 특별법은 한국에너지공대를 ‘특수법인’ 형태로 해 학생 및 교원 선발 과정에서 대학 자율성을 높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담고 있다. 현행 법 체제에서 교사(교수·학과 건물) 중공 지원에 따른 대학설립인가 적기 취득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눈앞으로 다가온 5·6월 내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발표 등 학교 설립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선 한전공대법의 조속한 제정이 선결과제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은 이날 “한전공대 설립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요하며 지역사업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 등 야당은 시급성을 고려해 대응적으로 결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안 가결 ... 헌정 사상 처음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관련기사 4면>

탄핵소추안을 사실상 당론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에서 찬성표가 쏟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앞서 1985년 당시 유대홍 대법원장

과 2009년 신형철 대법관에 대해 두 차례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헌재법에 따라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이 형사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된다. 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로 임기가 끝나 퇴임한다. 퇴임 전에 현재 결정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탄핵소추안을 제안한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이번 탄핵소추의 진정한 실의는 정쟁으로 시끄러워 보이는 와중에도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설계된 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와 NHN(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의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협약 및 착수식이 4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용섭 광주시장, 정우진 NHN 대표, 임차식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등 내빈들이 무대에 올라 협약을 축하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 AI융복합단지, AI 강국 전진기지”

문 대통령 “4년간 6200억원 투자 1200여개 일자리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광주 국가 인공지능(AI) 융복합단지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핵심 거점으로, 정보통신 강국을 넘어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꿈을 실현할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협약 및 착수식에 영상 축사를 보내 “광주가 인공지능 대표기

업들과 함께 인공지능 일등 국가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가 인공지능 융복합단지는 인공지능 4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광주 첨단 3지구에 조성되는 집적 단지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융복합단지의 핵심 시설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 인공지능 융복합단지를 위해 앞으로 4년간 6200억원을 투자하고 1200여개의

일자리 만들 것”이라며 “NHN이 2100억원을 투자하고 직접 운영하는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국내 최고의 슈퍼컴퓨터보다 세 배 이상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1억 번 이상의 영화를 저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광주과학기술원을 비롯한 광주·전남의 대학은 인공지능 인재 양성의 산실”이라며 “광주에서 양성된 청년 인공지능 인재들이 세계 시장에 도전해 광주를 세계적인 인공지능 창업도시로 발전시키고, 광주의 꿈이 더 많은 지역, 더 많은 청년에게 전달되도록 인공지능의 열기를 지역과 민간으로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 코로나 또 증가세 ... 설 확산 대책 시급

가족 간 감염사례도 늘어

연일 ‘롤러코스터 감염세’를 보이고 있는 광주에서 구체적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감염 증상이 없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엔 가족 간 감염사례와 증상발현 이후 수일간 검사를 지체하는 사례까지 늘면서 가족 간 감염이 많은 설 명절을 기점으로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도 우려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관련기사 2, 3면>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남 (738번째) 관련 2명, 광주 TCS 국제학교 관련 1명, 감염경로 미파악 2명 등 5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862명이다. 지난 3일에는 12명이 발생했는데, 광주에 거주하면서 나주 모 병원 간호사로 일하는 전남 738번째 확진자와 관련된 감염자만 6명이다. 전남 738번째의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나머지 2명은 각각 감염원이 파악되지 않은 확진자와 접촉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또 다른 1명은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전남 738번 관련 광주 확진자는 가족 9명, 지인 1명 등 모두 10명에 이른다. 송갑석 의원 후원회 사무실 관계자도 포함돼 당국은 안전 문자메시지를 통해 방문자들에게 검사를 안내했다.

방역당국은 감염원 불명은 물론 가족 간 감염 사례까지 급증하자, 유증상자나 다른 지역 방문자가 있는 가족에게 적극적인 검사를 권유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또 무증상 확진자 증가와 유증상자 검사 지연 등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도 우려하고 있다. 실제 광주에선 지난 1월 발생한 지역 확진자 717명(해의 유입 13명 포함) 가운데 무증상자는 449명(62.6%)으로 유증상자(268명)보

다 훨씬 많았다. 증상 발현 후 검사까지 3일 이상 지체한 사례도 유증상자의 63.1%인 169명에 달했다. 한 달간 가족에 의한 감염도 34가구 138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가족 중 증상이 있거나 타지역을 방문한 경우 선별검사소에서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AMORE PACIFIC CORPORATION

## ● 기업고객님을 위한 아모레퍼시픽 설 선물세트 ●

● 3만원 이상

미장센 퍼펙트 에디션  
39,900원 (2+1)

러 자양윤모 탈모증상케어 세트(자성&건성)  
39,900원 (3+1)

러 등백&박하 에디션  
34,900원 (3+1)

정성가득 기프트  
55,900원 (3+1)

● 3만원 이하

도담 16호  
16,900원 (10+1)

도담 21호  
21,900원 (카드 30%할인)

희망가득 기프트  
75,900원 (3+1)

로즈 에디션 1+1세트  
28,900원

라벤더 에디션 1+1세트  
28,900원

해당 프로모션 적용기간 2/1 ~ 12 일 까지 아모레퍼시픽 데일리뷰티 광주영업팀 : 062-231-1868(09:00~18:00)

\*본 카달로그의 이미지는 연출컷으로 실제 이미지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장별 취급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매 전 매장 담당에게 문의해주세요.